ACRC NEWSLETTER 2023
Vol. 76
SPRING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국민권익

부패글래스, 모든 부패 OUT!

부패방지의 모든 것을
콕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ACRC NEWSLETTER 2023
Vol. 76
SPRING

CONTENTS

유익한 권익

04 권익 현장
-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

08 정책 공작소
2023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4 빅데이터 窓
2023년 3월 국민의 목소리

18 권익 키워드
4월의 관심키워드: 예비군 훈련

20 친절한 권익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2 ACRC 뉴스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외

발행일 2023년 4월 24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임규홍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www.acrc.go.kr
blog.naver.com/loveacrc
twiter.com/loveacrc
www.facebook/loveacrc
www.instagram.com/acrc0229

생활속 권익

26 고충 해결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30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상향 권고

32 권익비전
Hot 영상 추천

34 카툰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공감의 권익

36 사람과 권익
요트로 세계를 완주한
모험 전문가 김승진 선장

40 찰나의 순간
화려하지 않아 더욱 어렴풋한
봄꽃 엔딩, 전남 구례

46 휴먼+트렌드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찰

50 찾아가는 권익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

52 이야기가 있는 레시피
꽃구경도 좋지만
조심해야 할 황사와 꽃가루

56 독자의 소리
퀴즈 당첨자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및 유공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은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으로도 생중계로 함께 진행됐다. 그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2023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0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5점, 위원장 표창 84점이 수여됐다.

기념식에 앞서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증진' 인식 향상을 위해 청렴 판소리 '신별주부전' 및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바라는 세상'이 공연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기념식은 국민권익 증진 유공자가 기념식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위해 수상자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를 확대하고 수상자, 관계자 중심으로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으로도 생중계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3년부터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정책 총괄기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기념사를 전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 울산흥사단의 이영주 사무처장이 대통령표창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오랫동안

반부패 청렴운동 및 교육활동에 전념해왔으며 특히 울산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책임자로 '청렴정책포럼,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패방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왔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박영철 전 서울시 마포구 대표 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제2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그는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김지수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라움의 소리나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해왔다.

한편, 민원·옴부즈만 분야의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경상북도 영양군의 심영희 주무관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통신회사의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해 근무시간 외에도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앱으로 접수하고 이튿날 근무일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24시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민원만족도 점수를 온도탑 형식으로 공개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온도탑' 및 디지털약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도우미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민원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귀감이 되었다.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월 1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한시기구('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형태로 2018년 11월 출범해 2022년 12월까지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연루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채용과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 출범한 신고센터는

기존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추진해오던 1,300여 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우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신고센터는 기관별로 제정·운영하는 자체 채용규정 상 미흡한 점과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고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규 개선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 공정채용 제도개선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고센터는 공정채용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 31개 조문과 일원화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식이 담긴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1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가 42만8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고센터는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신고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3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이 보호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낌 없이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추진할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I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① 찾아가는 민원 해결로 서민·소상공인 민생 어려움 해소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약 100회)'를 운영해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 '기업고충 현장회의(월 1회)'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집단고충민원(100인 이상)은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 해결

'집단민원 조정해결 TF'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현장조율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고충민원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③ 빈발민원은 기획조사로 근원적으로 해결

빈발민원이나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 법·제도적 미흡 요인을 개선하고 현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안)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	환경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생활불편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현장중심으로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현장회의 운영

집단고충민원(100인 이상) 적극 해결

빈발민원은 「고충민원 기획조사」로 근원적 해결

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①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 추진 등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 정책화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소통 포털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 검토·처리 흐름도】

제안 접수·처리	정책화과제 발굴	정책화과제 선정	정책화 추진	국민체감
(국민) 국민제안 신청 (소관기관) 국민제안 접수 및 1차 검토·답변	모니터링, 정책화과제 발굴 (대통령실·권익위)	정책화 추진과제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정책 반영 제도개선 추진 (권익위·소관기관)	이행관리·홍보 (대통령실·권익위)

②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민원예보 발령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연간 1,300만 건('22년 기준)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분석'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3대 개혁 등)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

민원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 예보

Ⅲ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①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사용 근절 추진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청렴포털을 통한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2022년 연2회)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을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형 청렴교육 등 체험형·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상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기관 주도의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③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해 국민 혼란을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30%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특혜 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해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약 10만 개)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Ⅳ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23.1월 신설)'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하여 처리토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약 1,300여 개)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주요 기능

- ✔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준' 마련
- ✔ 공정채용 실태조사 관리대상 확대
- ✔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처리
- ✔ 기관별 인사규정 컨설팅
- ✔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 운영
- ✔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포상

②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의 인정기간에 대한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V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체계도

②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

빅데이터로 확인하는 2023년 3월 국민의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bigdata/bigMainPage.npaid)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기관별, 성별, 연령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의 민원 빅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각종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교육청, 금융감독원 등이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했다.

1 민원 추이

- 2023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55,571건**
- **전월**(933,590건) 대비 **23.8% 증가,**
- **전년 동월**(946,374건) 대비 **22.1%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 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4.3. 10시)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8.5%) 및 **30대(23.8%)**, 성별로는 **남성**(66.1%)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5%), **40대 여성**(18.0%), **30대 남성**(17.0%)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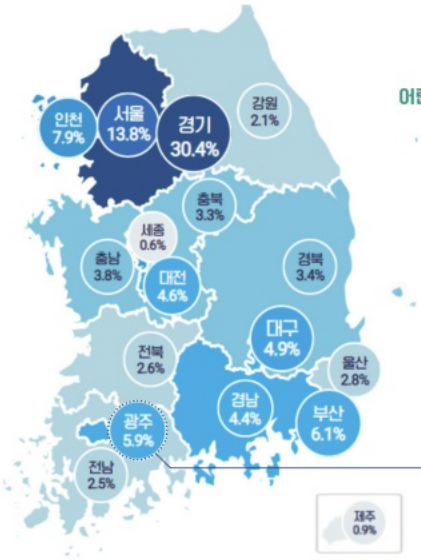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33,986건 대상

3 지역별 현황

- **경기 30.4%**(293,345건), **서울 13.8%**(133,263건), **인천 7.9%**(76,579건), 부산 6.1%(58,530건), 광주 5.9%(57,377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2.1% 차지
- 재개발 공사 관련 내진·면진 설계적용 요청 등 **광주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5.7%↑),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28,570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964,86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광주광역시 주요 민원키워드

광주광역시 민원발생 현황

4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58.0%)**가 가장 많고, 도로(7.1%), 행정안전(7.0%), 환경(3.5%), 주택건축(2.5%), 경찰·검찰·법원(2.1%), 산업통상(2.1%)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경찰·검찰·법원	산업통상	보건	
58.0%	7.10%	7.00%	3.50%	2.50%	2.10%	2.10%	1.40%	
문화	교육	수자원	재정	방송통신	국방	노동	농림축산	
1.30%	1.10%	1.00%	0.80%	0.80%	0.80%	0.80%	0.70%	
도시	과학기술	체육	복지	세무	관광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60%	0.50%	0.50%	0.50%	0.50%	0.40%	0.20%	0.20%	0.20%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55,571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체육 32.0% ▲	관광 30.5% ▲	경찰검찰법원 28.9% ▲	농림축산 28.6% ▲	수자원 26.7% ▲
감소순	방송통신 4.1% ▼	과학기술 7.1% ▲	복지 9.7% ▲	교육 9.7% ▲	세무 12.3% ▲

5 주요 민원키워드

3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수도권 GTX 확충, 제2경인선 원안추진, 지하철 연장, 영통 소각장 대보수 반대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처분 등 교통법규 위반신고 등은 '불법주정차 등' 키워드에 포함

순위	키워드
1	영흥공원 폐기물
2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3	영통 소각장 패쇄
4	코스닥 상장사
5	부출입구 개설
6	번호판 오염·훼손
7	거제2구역 재개발
8	시흥 과밀학급 해소
9	위례 경관개선사업
10	수당차별 시정

일반

1. 수원 아파트 영흥공원 폐기물 관련 보상 요구
3. 수원 영통 노후 소각장 대보수 반대
4. 주가 부풀린 모 기업대표 처벌 요구
5. 수원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7.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비리 시정 요구
9. 위례중앙로 경관 개선사업(위례상징물 포함)
10. 영어회화강사 수당 등 처우개선 요구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등
2	제2경인선 원안추진
3	통학대책 요구(덕은)
4	미디어밸리 지구
5	지하철 혼잡률
6	인천서구 GTX역
7	GTX 갈매역 정차
8	정차역 환승센터 신설
9	위례신사선 조기개통
10	항동역 조기착공

도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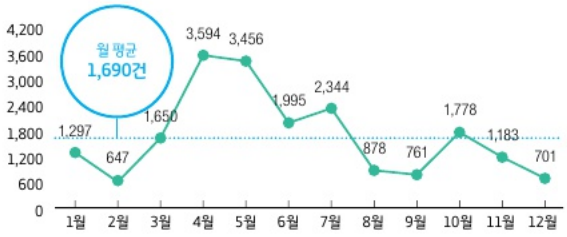
3. 고양 덕은지구 내 학생들의 통학대책 요구
4. 대장-홍대선역 덕은미디어밸리 지구 내 설치요구
5. 김포·검단 5호선 연장 요구
6. 인천서구 GTX역 선정요구
8. 고양 덕은·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정차역 신설
9. 위례신사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
10. 경의중앙선 항동역 조기 착공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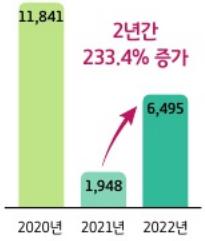
4월의 관심키워드: 예비군 훈련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예비군 동원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되면서 병무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도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랜만의 예비군 훈련에 따른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1 민원 추이

›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0,284건('20.1월~'22.12월)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4~5월에 가장 많이 발생(34.8%)했다.





2 신청인·신청지역

› 신청인은 남성(98.5%)이 여성(1.5%)보다 많고,
연령별로 50대(62.1%), 20대(17.4%), 30대(8.2%),
60대(7.6%), 40대(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7,335건(전체의 85.5%),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6,964건(전체의 83.6%) 대상

› 신청지역은 강원 춘천시(51.1%), 광주 북구(6.3%),
서울 은평구(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7,225건(전체의 84.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 기관 유형별로는 국방부가 31.6%로 가장 많고, 국민권익위원회 28.3%,
국가보훈처 13.2%, 대검찰청 5.8%, 병무청 4.3%, 경찰청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개선 요청사항

>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와 교통, 훈련급식 불만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및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① 실거주지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② 훈련이수실적 등 관리시스템 개선 요청
③ 훈련급식 품질 개선
④ 한부자 가정 훈련변경 등

5 민원 사례

주소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강원도 ○○ 예비군 부대로 지정되고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1.9. 서울병무청)
- 예비군 훈련 장소를 현재 실거주지 근처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정상 주민등록지는 전라북도의 외할머니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시 ○○구입니다. ('21.4. 전북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 이수실적, 소집통지서, 교통 등 관리시스템 개선 요청

- 예비군 훈련 이수 누락 전산처리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수한 훈련이 행정 처리 실수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해당 문제점을 개선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2.6. 국방부)
-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각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학생들의 학생 예비군을 신고하느라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복학하면 학생 예비군이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1. 국방부)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운영 확대

- 휴일 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2.6. 국방부)
- 휴일 예비군 훈련이 전무합니다. 병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유지와 국민 보건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2.5. 국방부)
-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일요일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22.7. 국방부)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요청

-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3.3. 병무청)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OMR 퀴즈

각 번호 OX OMR을 체크해서 「국민권익」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OX OMR로 권익 정보도 알고 상품도 얻어가세요.

#1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

O	( )
X	( )

A. 대상이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령과 학교폭력 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

#2

Q. 그럼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까?

O	( )
X	( )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3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 될까요?

O	
X	

A. 네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4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고요?

O	
X	

A.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담임 교사, 교과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5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될까요?

O	
X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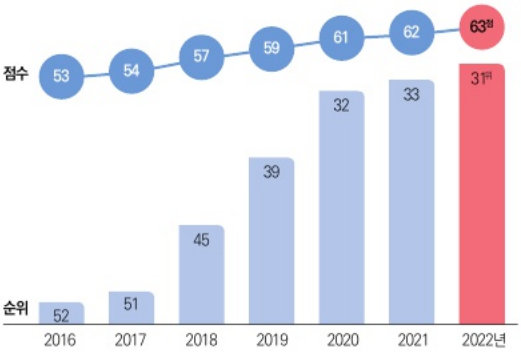
#6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O	
X	

A. 받아도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학부모 중에 공직자가 있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의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결과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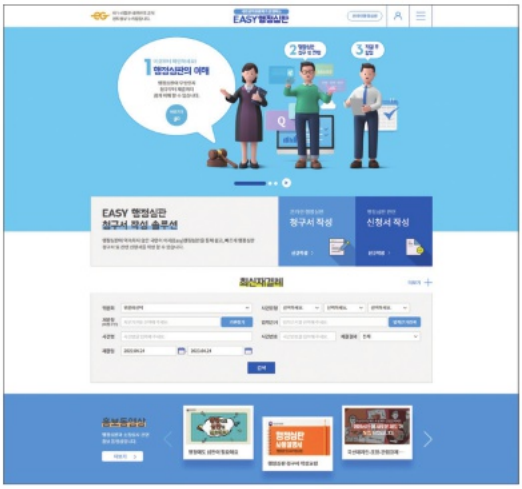
이들 기관은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민원행정 체계와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하나, 청구서 작성의 어려움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하면 무료로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청구인, 처분명, 처분일 등 몇 가지 처분정보를 입력하면 청구서와 30여 종의 신청서가 자동 완성되고, 맞춤형 재결 사례까지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활용 기관을 53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올해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22.3분기 공시 정원 기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청백리포터 발대식

3월 17일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3 청백리포터 발대식이 열렸다. 청백리포터는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블로그 콘텐츠, SNS 채널 활성화, 인터뷰, 현장스케치 등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3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신문고를 활용해 고충처리 경험이 있는 직장인과 대학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 연령으로 17명이 선정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현희 위원장의 인사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청백리포터 자기소개, 그리고 기자단 소개와 콘텐츠 제작 방법 교육 등이 이어졌다.

활동내역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우수 활동 청백리포터에게는 위원장의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렴윤리경영 표창 수여

3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을 적극 도입·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청렴윤리경영 CP는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각 기관에 내재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관련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 CP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민원의 종류나 처리기관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민원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01 방문상담

상담신청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방문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 시 민원으로 접수해 소관기관 이송
방문 주소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02 예약 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 예약 신청(www.counseling.go.kr)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전 조사	사실관계 사전 조사
센터 방문	예약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 시 민원으로 접수해 소관기관 이송

03 온라인 상담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실 확인·자료 조사	상담 내용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확인	'국민신문고'에서 결과 확인

04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365일 24시간 **국민콜 110**	24 전화상담	문자상담	TALK 카카오톡 상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소개한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헌신한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세요."

제104주년 3.1절인 2023년 3월 1일, 18세의 나이로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회' 회원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87년부터 약 36년간 29차례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던 '우리회' 회원 후손의 호소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독립투사 후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자료조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1942년은 일제강점기 말기로 창씨개명 등 일제의 강도 높은 탄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전주사범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 교사로서 미래가 보장된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지만, 고(故) 김○○ 선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안정된 장래보다 조국을 위한 희생을 택했다. 고(故) 김○○ 선생과 뜻이 맞는 학우들은 비밀결사인 '우리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의했다.

고(故) 김○○ 선생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이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노력했다.

고(故) 김○○ 선생의 아들은 1987년부터 29차례에 걸쳐 선친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당시의 수형기록이나 언론보도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고(故) 김○○ 선생의 아들은 2022년 4월 새 정부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전주교대(옛 전주사범학교)와 국가기록원 문서고에서 1941년 입학생 88명 전원의 학적부를 확보해 일본어 번역을 의뢰하고 역사 전문가에 자문했다. 그 결과 당시 '우리회' 회원 중 7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로 복역했고, 고(故) 김○○ 선생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은 3, 4학년 학적기록만 공란으로 되어 있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고(故) 김○○ 선생의 사진에서 보이는 옷차림을 보고 조선청년특별훈련소 교관일 수 있다는 친일 의혹에 대해 역사 전문가에게 자문해, 입고 있던 외투가 당시 일반인들이 입던 국민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 이 같은 치밀하고 끈질긴 자료조사 끝에 '우리회' 회원의 공적을 다시 심사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재심사 결과 '우리회' 12인을 서훈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고(故) 김OO 선생을 포함한 12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게 된 것이다.

"숲길을 조성할 때 사유지가 포함되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A씨는 아내와 누나가 소유한 필지를 2016년부터 동의 없이 숲길에 편입하고 이를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탐방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털 및 블로그에도 숲길에 포함된 사유지가 노출되면서 사유지에 대한 무단침입 방지와 보상,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조치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숲길의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 숲길 역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보상금 지급 등은 근거 규정이 없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 한편 민원인의 사유지 통과 노선은 폐쇄했고 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숲길 조성은 의견수렴만 가능하고 사유지의 소유자 등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즉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숲길 조성 시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신청인이 민원 숲길을 조성하면서 2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민원 숲길 조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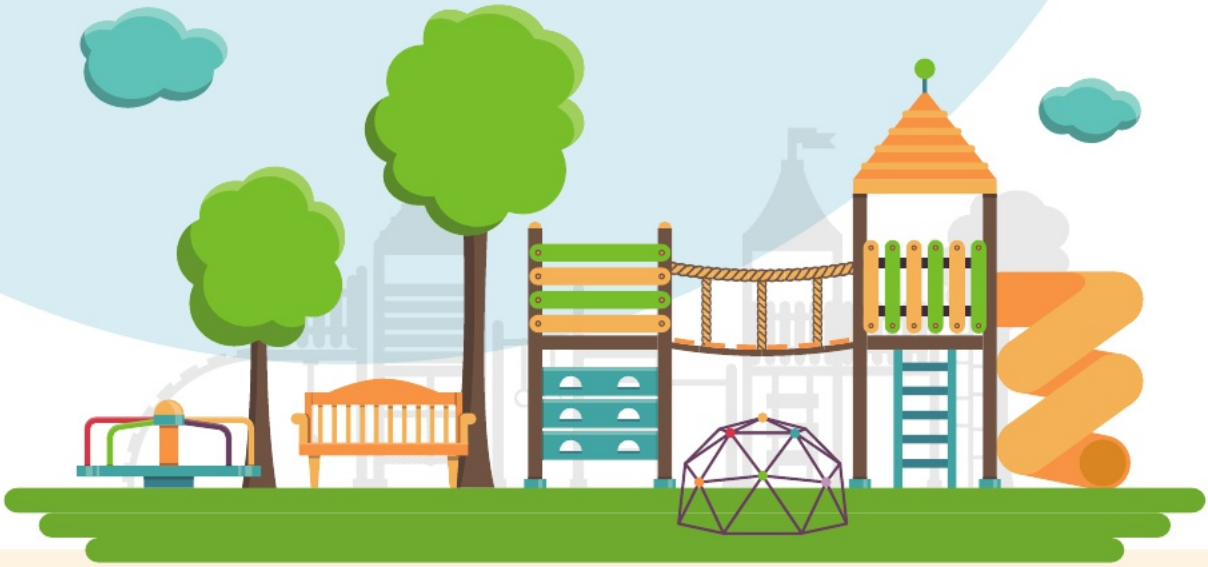
다만, 피신청인은 민원 숲길을 폐쇄하고 사이트 등에 노출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신청인 등의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숲길' 조성이 다수의 건강과 행복 증진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숲길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유 재산이 동의 없이 공중에 노출되고 일반에 의해 사용되어 재산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공고된 숲길이 폐지될 경우 예산 낭비 및 해당 숲길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참고해 향후 숲길 조성 시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상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 안전 관련 민원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2022년 11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 기준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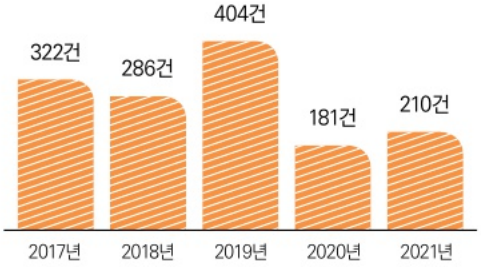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등의 실내실외 놀이터로, 2022년 11월 2일 기준 78,813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보상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의무가입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의무가입이 규정된 유사한 보험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유사 의무보험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서 보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온 것에 반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200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중대사고인 사망사고의 경우, 스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약 15년 전 수준인 8천만 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보상한도액을 자체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는 2017~2021년 연 평균 28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음에 따라 보험 청구와 배상 문제 등에 대한 민원과 보상한도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대사고 발생현황〉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생활 안전사고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물가상승분 반영 등을 고려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을 상향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보상한도액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익비전 Hot 영상 추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식 유튜브채널인 '권익비전'을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 고충처리, 제도개선,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재미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까지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구독자에게 인기를 얻은 영상과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권익리뷰 투토커 '유치원 졸업 편'

입학·졸업 시즌을 맞아 학생·학부모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학부모가 된 투토커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려요.

링크주소
https://youtu.be/kKxyx89uq8Q

권익위가 간다! 장학금 환수 고충해결 편

언제나, 어디든지 국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사회초년생이 겪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링크주소
https://youtu.be/jRvLKzNViHA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영상분야 **대상**

경기도교육청의
<상호존중 잇다, 있다>

링크주소
https://youtu.be/6s4BzdQNF1w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그림. **디자인에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요트로
세계를 완주한

모험 전문가 김승진 선장

2014년 요트 하나에 몸을 싣고 무동력, 논스톱으로
209일간 4만1,900㎞를 단독항해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
2017년에는 9개월 동안 일면식도 없던
일반인들과 함께 14개 나라 26개 항구를
경유하는 약 32,000km 항해를 무사히 완주했다.
모험 전문가 김승진 선장이 들려주는
바다와 요트와 그리고 모험 이야기.

글. **나덕한** 사진. **이용기**

45명의 일반인과 함께한 9개월의 요트 여행

"평생 살면서 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요?"

2015년 요트 하나에 몸을 싣고 무동력, 논스톱으로 209일간 4만1,900㎞를 단독항해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은 2016년 12월에는 크로아티아를 출발해 스페인, 콜롬비아, 폴리네시아, 사모아, 일본 등 14개 나라 26개 항구를 경유하는 여정을 얼마 전에 무사히 마쳤다. 홀로 도전했던 앞선 세계 일주와 달리 2016년 시작한 항해에서는 45명의 일반인이 18개 구간으로 나눠 그와 함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요트를 널리 알리자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직장인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무료 강습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요트를 타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승진 선장은 SNS를 통해 9개월 동안 지구의 3/4을 항해할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다. 참가비 전혀 없이 자신이 먹을 음식과 생필품만 가져오면 된다는 공지에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참가 의사를 밝혀왔다. 2016년 12월, 크로아티아와 그리스에서 2대의 요트가 힘찬 바람을 맞으며 출항을 시작했다. 9개월 동안의 여정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김승진 선장은 거의 모든 참가자가 처음으로 타보는 탓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요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영화나 TV에서 봤던 장면처럼 와인을 마시고 수영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하지만 이내 실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파도에 부딪히면서 멀미 탓에 며칠 동안 고생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나가는 배 한 척 없는 똑같은 바다의 모습에 환상이 깨지고 마는 거죠."

하지만 김승진 선장은 바다의 진면목은 그때부터라고 얘기한다. 물과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유적지도 둘러보며 요트에 익숙해질 때면 요트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된다는 것.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다를 구경할 생각으로 밖을 나갔는데 순간 얼음덩어리가 배 바로 옆을 스쳐갔어요. 조금만 옆으로 다가왔으면 바로 부딪혔을 텐데 다행이었죠. 또 뉴질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돌고래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돌고래 떼들을 촬영하러 갔다가 너무 깊은 곳까지 가버렸어요.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는 건 처음 경험했어요. 셀카봉으로 콧잔등을 찌르고 도망가고 찌르고 도망가면서 진짜 간발의 차이로 요트에 올랐는데, 행운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

다큐멘터리 PD, 선장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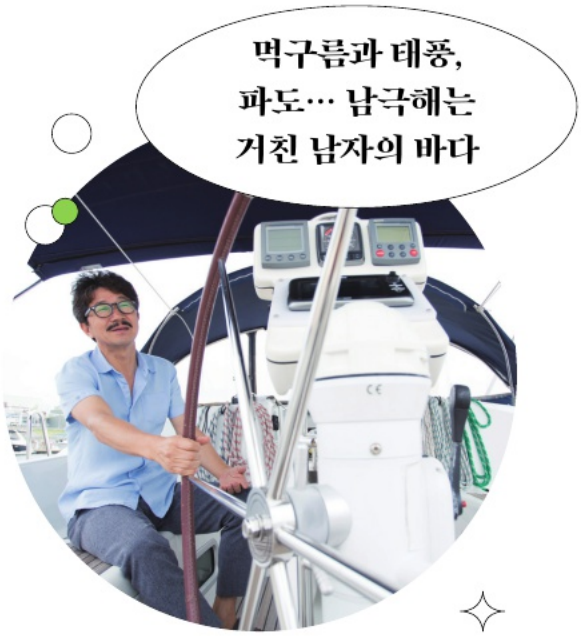
사실 김승진 선장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농촌에서 자란 그가 바다를 처음 본 것은 수학여행에서였다. 지평선 위로 보이는 바다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바다에 빠진 그는 한강을 다이빙으로 종단하고 해외에서도 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다.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이었는데 헤엄을 치고 내려와 보니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와 그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전 세계를 누비는 직업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그리고 2001년, 일본인이 요트로 세계일주 경험담을 적은 책을 보게 되면서 모험전문가로의 꿈을 어렴풋이 꾸기 시작했다. 무동력 세계일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4년 만에 다큐멘터리 PD였던 그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이미 세계일주를 경험한 아라파니호를 구입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어떤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배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무기항, 무동력 세계일주라고 한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력을 사용하지만 철저하게 두 개의 돛으로만 항해를 해나간다.

"2014년 10월 19일 당진 왜목항을 떠나서 209일 동안 41,900km를 항해했어요. 가장 먼저 일본을 통과해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를 지나 남극해를 거친 뒤에 인도양에서 북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준비 과정부터 출발까지 전부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처음 가본 남극해가 떠오른다고 얘기했다.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잿빛 하늘이 계속됩니다. 남극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카리브해의 멋진 하늘을 생각했던 거예요. 가식적인 바다를 그리워했던 거죠. 그때부터는 남극해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어요. 먹구름과 태풍, 파도의 남극해는 거친 남자의 바다였어요. 그 속에서 유빙들이 떠다니는데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이는 유빙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예뻐보였다니까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모험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 알리고 있는 김승진 선장. 단 2개의 천 조각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그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험 전문가라는 그의 직업이 부러웠던 것은 비단 혼자만은 아니었을 테다.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선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 것도, 동행한 그림 작가인 분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바다의 풍경을 담은 모습도 기억에 남아요. 아, 참치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참치를 잡아서 함께 맛있게 나눠 먹은 것도 좋은 추억이었고요."

화려하지 않아 더욱 어렴풋한
봄꽃 엔딩,

전남 구례

4년 만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달콤한 꽃내음이 가득한 봄이 시작됐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라남도 구례에는 세 가지 색의 세 가지 꽃이 피어 한 폭의 수채화를 이룬다.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화엄사 각황전 옆 홍매화, 섬진강과 서시천의 벚꽃이 연이어 피는 구례는 그야말로 봄 여행의 성지가 된다.

글. **나덕한** 사진. **이용기, 나덕한, 구례군청**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나 물을 머금은 산수유

봄꽃여행의 1번지, 구례에서 만날 수 있는 삼색 삼화 중 첫 번째는 바로 구례 산수유다. 구례 산수유꽃은 축제장인 원좌마을 외에도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반곡마을, 돌담이 아름다운 현천마을, 산동면 내에서도 산수유가 가장 많은 상위마을 등에서 산수유 꽃담길을 따라 산책로 곳곳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해마다 봄이면 전국 각지에서 산수유를 보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봄꽃 성지다.
하지만 산수유는 비단 샛노란 꽃만 예쁜 것이 아니다.

1천 년 전 중국 산동성의 처녀가 구례로 시집을 오면서 산수유 나무를 심은 것이 유래가 돼 산동이라는 지명도 생기고 이때부터 산수유 농업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가을이면 붉게 익는 산수유를 채취할 수 있는 축제도 열린다. 행사장 주변으로 수백만 송이의 국화가 피어 구례의 가을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산수유 열매는 주로 한약재로 쓰이는데 칼륨, 칼슘, 아연 등 풍부한 무기질과 사과산을 많이 함유해 한약재로 보급되면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구례 산수유는 2014년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마을 주변에 형성된 산수유 군락지는 주변 생태계를 연결하는 한편 돌담과 함께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비법, 수확 및 씨 제거방법 등 고유의 전통농법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산수유 나무 만큼이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돌담이다. 집과 논밭의 경계에는 어김없이 오래된 돌들이 차곡차곡 쌓인 정겨운 돌담길이 구불거리며 펼쳐져 있다. 제주의 돌담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구례의 돌담은 집을 지으면서 또는 계단식 밭을 개간하면서 생긴 돌을 이용해 조성한 것이다. 돌들이 토양 속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봄 가뭄에도 산수유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완충작용을 하며 산수유에 생기발랄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섬진강변을 하얗게 수놓은 벚꽃

구례 화엄사에는 천연기념물인 올벚나무가 있다. 벽암 각성스님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 38호인 지장암 올벚나무의 나이는 3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구례의 벚나무의 역사는 그 이후 1930년경에 다시 시작되었다.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해방 이후 올곧은 구례의 선비들이 벤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년 전 구례의 어느 큰스님께서 벽암 스님이 외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었던 그 정신을 본받아 구례의 미래를 위해 심었다는 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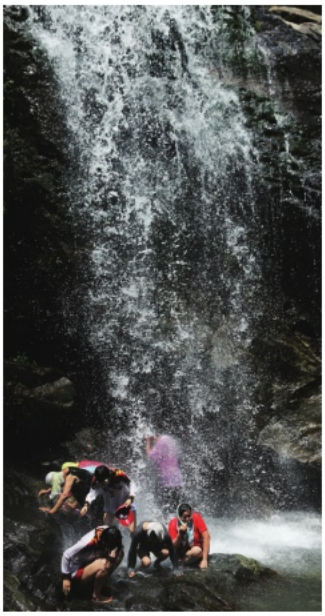
이런 저런 이유로 산수유를 미처 보지 못했다면 섬진강 주변을 따라 약 3km의 벚나무 가로수 길이 국도 17호선과 19호선을 따라 조성된 섬진강 벚꽃길의 산책로를 차분히 걸으며 '흩날리는 벚꽃' 세례를 맞으며 소중한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봄의 정취에 취해보는 것도 좋다. 1992년부터 조성된 이곳은 산책하기에도 좋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드라이브 코스로도 가히 국내 최고라 할 만하다.

이외에도 서시천 생태탐방로를 따라 벚꽃이 만발해 이를 배경으로 산책을 하기에도 자전거를 타기에도 감성이 폭폭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다.

봄이면 낯빛마저 영롱한 화엄사 홍매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 화엄사는 빛나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년 고찰이다. 현존하는 목조건물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과 4사자 삼층석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 각황전 안의 영산회괘불탱 등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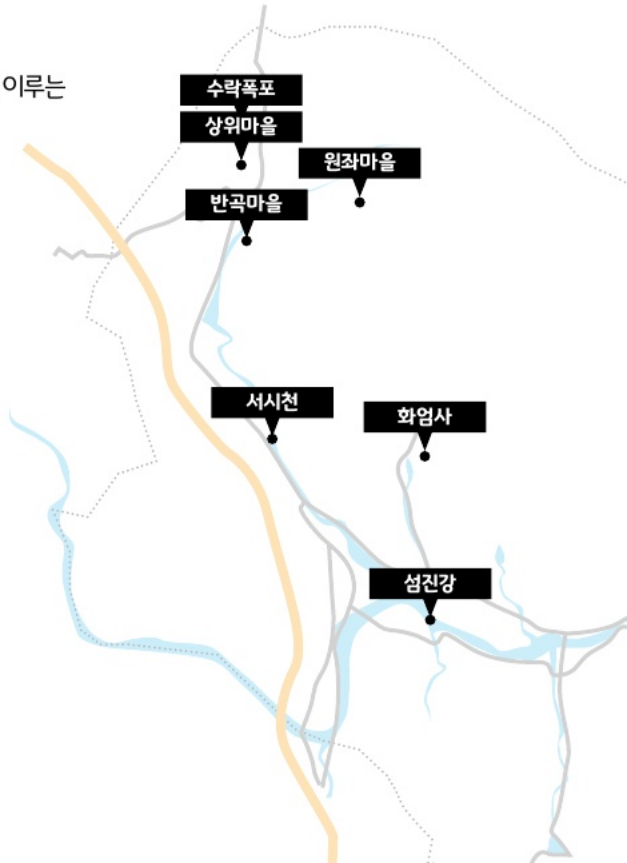
봄이면 화엄사에는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데 이들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다. 화엄사 각황전과 원통정 사이의 홍매화의 자태를 보기 위해서다. 홍매화는 장육전이 있던 자리에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중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계파 선사가 심었다고 전한다. 장육화라고 하며, 다른 홍매화보다 꽃이 검붉어 흑매화로 불리기도 한다. 250~300년 정도의 홍매화 고매는 우리나라에 세 그루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화엄사에 있다. 매년 3월 말이면 그야말로 국보급 대접을 받는 나무가 바로 화엄사 홍매화다.



건강에 좋은 물맞이 폭포, 수락폭포

구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수락폭포다.
수락폭포는 하늘에서 은가루가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는 15m의 폭포로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낙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이곳 폭포수를 맞으면 신경통, 근육통, 산후통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수락폭포는 날이 가물어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할 정도로 물이 많아 물맞이 폭포로도 유명하다.

여름이면 폭포 아래서 물을 맞는 사람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장관을 이룬다.
예로부터 수락폭포는 근처 주민들이 모내기와 김매기를 마치고 농한기로 접어들 때 허리 통증, 신경통을 다스리기 위해 찾던 일종의 민간 치료장소였다.
이른바 천연 워터 테라피의 원조격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국악의 성지로도 통했다.
동편제의 국창 송만갑 선생 등 동편제 소리꾼들이 인근 주천 구룡폭포와 더불어 득음 장소로 활용했던 곳이다.



관찰 예능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들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린 시절 동요를 부르며, 우리는 브라운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리고 오늘날 노랫말은 현실이 되었다.
많은 비연예인, 특히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없을까?

글. 이성미

관찰 예능에 빠진 대한민국

A군은 초등학생이다. 친구, 부모, 교사 가릴 것 없이 욕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언행에 대해 상담사는 "아이에게 불안감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센 척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아이가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고 조언한다. 이후 아이의 문제 행동이 차츰 교정되고, 가족이 일상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회차는 마무리 된다.
B, C씨는 연예인 부부다. 이들은 초보 부모가 겪는 상황들을 방송으로 선보인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 태어나 울고, 먹고 싸고 놀고 자고 성장하는 모든 일상이 공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 기쁨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요즘 방송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포맷이다. 그야말로 관찰 예능 전성시대다. 2000년대를 전후해 방송가에서는 '관찰 카메라'를 도구로 하는 예능이 다양한 포맷으로 시도됐다. 비연예인, 특히 아동의 출연도 눈에 띈다. 2000년 1월부터 방영된 MBC <목표달성! 토요일-GOD의 육아일기>에서는 육아 경험이 없는 남성 멤버들이 한 아이를 돌보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섭외된 아동의 귀여운 모습에 수많은 '랜선 이모', '랜선 삼촌'이 생겨났고, 방송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처음 방송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더 '현실적인' 아동의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유·아동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형식으로, 10년 넘게 방송됐다.
그리고 오늘날 연예인 가족, 비연예인 가족 할 것 없이 아동의 예능 출연 비중은 크게 늘었다. 2022년 10월 기준 관찰 비연예인 예능 현황을 보면, 지상파와 케이블, OTT 채널을 통틀어 총 15편이 방영됐다. 이중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은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MBC <물 건너온 아빠들>, SBS Plu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MBN <고딩엄빠 3> 등 네 편이나 된다. 연예인 부모의 자녀를 비연예인 범주에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

‘리얼리티’의 자극에 열광하는 시청자와 자극에 노출된 아동

오랜 세월 여러 차례 보아온, 현재는 이미 포화상태인 관찰 예능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찰 예능은 미리 짠 각본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인물의 심리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비연예인의 모습은 더 현실감 있다.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비연예인은 실제 성격이나 행동을 잘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리얼리티의 농도는 더 짙다. 비연예인들의 연애, 결혼생활, 육아 등을 보고 있노라면, 시청자는 마치 어떠한 상황을 대리 경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관찰하는 사람, MC 혹은 연예인 패널의 반응도 볼거리다. 패널들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과 적절한 추임새를 더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질 못한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요구하고 떼쓰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긴다. 이러한 예능 환경은 아이에게 자칫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다. 2020년 5월 연예인 부모가 체육관에서 맞고 쓰러지는 상황을 설정한 후 아이의 반응을 살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한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흥밋거리로 소비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우려처럼, 유년 시절의 공포는 힘이 세다. 순간의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과 비뚤어진 반응 또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오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잊힐 권리를 빼앗긴다. 방송은 자극적인 부분 위주로 재편집되고 이는 다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사람들에게 아이와 가정의 문제점을 재각인시킨다.
실제로 한 뉴스레터 플랫폼이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관해 독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9%(378명)가 ‘걱정되는 점이 더 많다’라고 답했다.

비연예인 출연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어린이는 방송 출연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며, 이후 방송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짚었다. 방송 출연 의사를 과연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논의부터 시작해 교육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한 관심과 존중

관찰 예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먼저, 일반인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아스퍼거증후군,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도 커졌다. 방송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 부모의 행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도 전달한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던 아이가 솔루션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해나갈 수 있고, 이에 대해 전 국민이 응원을 보내기도 한다.

아동·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 온 덕분에 제작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제작 과정에서 제작, 촬영 시간은 법령에 따르고, 심신의 건강, 학습관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과다한 노출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의 안전이 제작보다 우선되며, 이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물론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어떠한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작자, 시청자란 이름의 어른들의 변화다. 오늘의 흥행과 호기심보다 아동·청소년의 내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을 탄생하게 한 아동문학가 야누슈 코르착(Janusz Korczak)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라 말했다. 미디어에 대한 선망,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이다. 관찰에 빠져 정작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

HAPPINESS FOR ALL, DEMOCRACY

3월 20일은 2012년 UN이 정한 국제 기념일로, 2012년 6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의 행복해야 할, 국제 행복의 날을 지정했다.
UN은 당시 총회에서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평등하며,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구 차원의 가난 구제 등을 이뤄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은 전 세계 150여 나라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 누구나 행복해야 할 10단계

1 누구에게나 말 하세요.

2 당신을 행복하게 할 일을…

3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파하세요.

4 세계 곳곳에서 주최하는 행복한 행사에 참여하세요.

5 축하해주세요.

6 SNS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공유하세요.

7 결단을 내려보세요.

8 지속 가능한 상황을 개발하기 위한 UN의 글로벌 목표를 추진해보세요.

9 자연을 만끽하세요.

10 행복주의를 적용해보세요.

꽃구경도 좋지만 조심해야 할 황사와 꽃가루

지금 전국은 꽃 축제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상심리 탓에 4년 만에 열린 꽃 축제가 열린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봄과 함께 황사와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다. 안과성 질환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이들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박종선 의학전문기자

꽃가루와 황사가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겨우내 찬 바람 속에 숨어 움츠려 있던 근육이 기지개를 피는 봄은 따뜻한 기운 만큼이나 알록달록한 꽃으로 가슴을 두방망이질하게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봄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봄이 되면 흩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결막염 등을 겪는 이들이다. 보통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봄·가을철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알러젠(Allergen)에 반응하는 체질을 가진 경우에 증상이 발생한다.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결막염에 걸릴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봄철에 흔히 보이는 흰 솜털과 같은 것이 날리는 것을 꽃가루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보통 크기가 30~50μm 내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는 알레르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히 봄에 발병될 확률이 높다.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꽃가루나 먼지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잦아진다. 공기 중에 머무르는 화학 물질이나 오염 물질 등이 눈에 들어가면 눈꺼풀과 결막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심하면 결막이 부어오르고 눈곱이 많이 끼게 되며 심할 경우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결막염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와 '알레르기'다. 특히 봄에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우리 몸의 노출된 부위, 특히 눈에 달라붙어 자극 증상을 유발한다. 이때 생긴 결막염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건강한 정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출 후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을 삼가야 한다. 비누, 수건, 생활용품 등을 다른 사람과 구분해 써야 하며 만약 눈에 붙은 이물질과 분비물로 간지러움을 느낀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면봉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 착용이 효과적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황사·미세 먼지에 의한 결막염의 치료 방법은 원인 물질이 눈에 침투하는 것을 피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생리 식염수나 인공눈물로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잘 제거하고, 눈꺼풀에 냉찜질 등을 통해 혈관을 수축시키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봄철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평상시에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해보자. 눈의 이물질을 씻어내고 염증 물질을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특히 꽃가루가 날리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이물질이 낄 가능성이 높은 콘택트렌즈는 피하고 안경을 착용한다.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해야 한다면 안경보다 더 완벽히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만 있다고 해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실내 활동과 취사 등으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후드의 팬을 작동시켜 수증기와 연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또 집안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 실내공기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정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꽃가루가 날릴 때만큼은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다. 봄철에는 피부가 건조하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라면 3~4일 동안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얼굴에서 피부보호막이 제거되어 표피층이 꽃가루의 직접 공격을 받아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주위의 이물질 제거하자

외출 후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눈 주위를 잘 닦는다면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이비 샴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눈꺼풀 세정제 등을 사용하면 눈 자극을 줄일 수 있다. 안구 건조증과 눈꺼풀염의 치료를 위해 눈꺼풀 세정이 중요한데, 알레르기 때와 마찬가지로 속눈썹 부위를 세정제로 잘 세정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눈꺼풀에 기름샘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온열 찜질이 필요하다. 물에 적신 수건을 따뜻하게 해 눈 위에 올려놓는 방법도 있으나 매번 수건을 준비하기 어려우면 샤워할 때나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로 눈 마사지를 해 기름샘이 배출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씻는 것이 세정효과가 뛰어나지만 마지막에 찬물로 눈 주위를 찜질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건강한 정보

꽃가루로 눈이 충혈되거나 따끔거리면 반드시 생리식염수나 세정제를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뜨거운 물로 눈 마사지를 해 기름샘이 배출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함께 키운다면 털과 같은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자주 닦아낸다.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블루베리

슈퍼푸드로 유명한 블루베리에는 풍부한 항산화물질과 함께 아미노산과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건조하고 뻑뻑함을 동반하는 안구건조증과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 몇 해 전부터 각종 베리 열풍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조 격인 블루베리는 앙증맞게 생긴 외모만큼이나 새콤달콤한 맛도 일품이다. 미국 타임지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블루베리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아메리카에서 재배되어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이 즐겨 먹었다. 그들은 숲과 습지에서 따 먹거나 저장해서 식사 대신 섭취하기도 했다. 일부 인디언 부족들은 블루베리를 숭배했을 만큼 블루베리와 관련된 신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블루베리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다. 당시 독일을 공격한 영국 공군 조종사가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는데, 정확히 목표지점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 블루베리 덕분이라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루베리에는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색소의 재합성을 도와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재배도 쉬워 전국적으로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5월이면 온실에서 재배한 블루베리가, 6월 하순부터는 노지에서 자란 블루베리가 출하되기 시작해 9월 초까지 쉽게 먹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디저트로 즐길 수 있어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IP 블루베리, 이렇게 씻자

신선한 블루베리는 매우 약해서 간결하고 조심히, 부드럽게 가볍게 두드리며 씻어낸다. 사용 직전에 피부 표면에 있는 보호필름을 조기에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농인 경우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TIP 블루베리 이렇게 고르자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하얀 분이 고르게 묻어 있고 결이 선명하며 검푸른 색을 띄며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Recipe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블루베리 스무디

재료(2컵 분량)

냉동 블루베리 180g, 플레인 요구르트 100g,
우유 200ml, 얼음, 설탕 약간 또는 꿀 1/2 큰술

만드는 법

① 믹서기에 블루베리와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고
얼음 10개를 넣는다.
② 믹서기 뚜껑을 닫고 2분가량 곱게 갈아준다.
③ 투명한 유리컵에 담는다.
④ 기호에 설탕 또는 꿀을 넣거나
바나나 또는 딸기를 약간 넣어도 좋다.

재료

퍼프 페이스트리 시트 4장, 블루베리 콩포트·어린잎 채소 적당량씩,
크림치즈 3큰술, 스트링 치즈 4개,
달걀물·아몬드 슬라이스 1큰술씩, 블루베리 2큰술

블루베리 콩포트 재료

블루베리 1컵, 설탕 1/2컵

만드는 법

① 원하는 만큼의 블루베리와 설탕을 넣어
10분간 살짝 으깨면서 끓여 블루베리 콩포트를 만든다.
② 부드럽게 풀어둔 크림치즈를 넣어 섞어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만들어 둔다.
③ 퍼프 페이스트리 1장의 네 모서리를 1.5cm씩 잘라
나머지 1장에 달걀물로 붙이고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포크로 찍어 냉동실에서 잠시 보관한다.
④ 시트를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간 구워내
살짝 식힌 뒤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듬뿍 바른다.
⑤ 얇게 찢어 둔 스트링 치즈를 사선으로 놓아
그물 모양을 내준 뒤 가장자리에 달걀물을 바르고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다시 굽는다.
⑥ 완성된 파이피자에 아몬드 슬라이스와
블루베리 과육을 듬뿍 올리고 어린잎 채소를 약간 올리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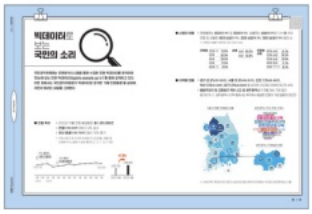
Recipe

쉽고 간단한 간식
블루베리 치즈 파이

독자의 소리

2022년 <겨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지난 호를 읽고



12월 관심키워드 '한파&난방'에 대한 민원사례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유독 추웠던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민원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경계석 턱 낮춤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오래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번 『국민권익』 통해 교통약자의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봉금(전라남도 곡성군)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아성(광주광역시 동구)

퀴즈 | Quiz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OMR 퀴즈!
엽서에 OX OMR 퀴즈 정답을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20~21P 참고)

※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퀴즈 정답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 지난호 정답 : 청렴연수원

1. 김수연(서울특별시 강동구)
2. 김혜린(경기도 시흥시)
3. 박새별(부산광역시 남구)
4. 서범근(울산광역시 중구)
5. 이소정(대구광역시 달서구)
6. 정경석(대전광역시 중구)
7. 최두성(광주광역시 동구)

※ 우편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분은 044-200-70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칠 하 는 곳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이메일

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9.3.22~9999.12.31
세종우체국
제40060호

신규 정기구독 신청 □

ACRC NEWSLETTER 2023
국민권익 Vol. 76 SPRING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권익위 열독왕 퀴즈 (OX OMR)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20~21P를 참고해 주세요!

1.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

(O X)

2. 그럼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까?

(O X)

3.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 될까요?

(O X)

4.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고요?

(O X)

5.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될까요?

(O X)

6.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O X)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6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